



**모내기 분주한 들녘**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쏟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담양군 수북면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삭제” 전남도 “이전후보지 광역단체장 협의”

### 군공항 시행령 10가지 압축

### 내달 국방부 건의사항 전달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법예고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각각 4가지와 6가지 핵심 건의 사항을 주려 정부에 강력 건의한다.

광주시는 기존부지의 땅값 상승 우려가 큰 독소조항 폐지에, 전남도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시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에 방점을 찍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함께 입법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4개 조항의 삭제, 변경,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의 내용은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이다.

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군공항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정부에서 지원할 초과 사업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가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도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부정한 지원금은 환수돼야 마땅하지만,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에 대해서도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점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기를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 국방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전남도도 시행령에 이전 지역 지원 내용이 전부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자체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수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김용현 기자

## ‘광주 버스킹 월드컵’ 흥행 청신호

54개국 299팀·국내 493팀 신청

총장축제 기간 현장라이브 경쟁

광주 총장축제 기간 펼쳐질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흥행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4월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버스킹 월드컵 국내·외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해외 54개국 299팀, 국내 493팀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이란과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참가 신청팀은 지난해(151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국내에서도 100여팀 늘었다.

동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위원단은 ‘광주 버스킹 월드컵’ 누리집에 제출한 동영상 기반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선·독창·합창·합주·무대 매너를 종합 평가해

최종 본선 진출할 64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발표는 6월 21일이다.

본선은 오는 10월 2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10월 3-6일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등 4개 무대에서 현장 라이브로 진행된다. 이후 결선은 10월 7일 최종 선발된 8팀이 라이브 토너먼트 방식으로 가락을 겨룬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0만원, 2등은 상금 2,000만원, 3등은 상금 1,000만원 등을 수여한다.

동구는 참가자들의 음악적 수준과 완성도 향상을 위해 해외팀에게는 항공권 등을, 국내팀은 참가 활동비와 내년 해외 공연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국내·외 뮤지션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능 넘치는 뮤지션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세계적 거리 음악 축제가 되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 순천만정원박람회, 두 달만 400만 돌파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 호응

6월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58일 만인 지난 28일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했다.

176일 만에 400만명을 넘어섰던 2013년 박람회와 비교해 3배가량 빠른 속도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차별성과 완성도를 갖춘 정원, 특히 ‘Big change 10’으로 불리는 콘텐츠들을 박람회 흥행 주역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오천그린광장’은 YB밴드 콘서트, 최현우 마술쇼 등 각종 문화 공연이 치러지는 문화공간이자, 시민들이 일상 속 숨을 누릴 수 있는 숲 속 정원으로 자리해 국내 새로운 광장 문화를 태동시키고 있다.

‘그린아일랜드’, ‘가든 스테이-셀라게’, ‘정원드림호’, ‘물 위의 정원’도 국내 최초 순천이 처음으로 시도해 만들어 보인 정원이다. /정근산 기자

기존 정원박람회장 외 도시 전역을 정원으로 삼아 새롭게 창조한 콘텐츠도 개막 후 400만 관람객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또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관람객들이 집중되는 주말에도 교통대란 없이 쾌적한 관람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흥행 요인 중 하나다.

400만명이 입장한 두 달 동안 박람회 자체 매출 현황은 지난 27일 기준 235억원을 넘어섰다.

입장권 판매액이 1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식품 시설은 48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관람차, 스카이뷰브, 정원드림호, 가든 스테이 운영을 통해서도 2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조직위는 다가올 여름 시즌을 맞이해 ‘여름 정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동안 개장 시간을 한 시간 늘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정근산 기자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0.54kWh/일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 올여름 계획적으로. 1kWh 줄이기 로부터 시작

올여름엔 휴가 계획보다 에너지 계획을 먼저 세워보세요. 전기 사용 패턴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하루 1kWh 줄이기 01. 에어컨 설정 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C 유지하기 0.41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0.32kWh/일